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InChrist CommunityChurch

08
Aug 2022
Vol.10 No.08
통권96호

■ 주안에세미장학회
■ 임직투표 공동의회
■ 주안에훈련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cccla.org

9월 첫주부터 밸리채플에서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OC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밝은 얼굴로 교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황성남 기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온전한 예배'

■ 밸리 · OC채플 함께 주일예배

복음을 위해서라면 거리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한때는 세개의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며 힘차게 달려왔던 주안에교회가 이제는 주일예배 만큼은 하나의 채플로 응집하게 되었다.

주안에교회의 최혁 담임 목사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근까지도 주일이면 두개의 채플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감수 하였지만 장소 사용의 불편함과 예배시간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의 집중이 힘들어진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당회원들과 논의끝에 마음아픈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밸리와 플러튼은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이지만, 그럼에도 플러튼 채플의 많은 성도들은 기꺼이 주일에는 밸리채플까지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

그동안 양쪽 채플의 성도들은 행사 때마다 서로 왕래를 하면서 교제를 해왔기에 서먹함 보다는 반가워하는 마음이 더 앞서리라는 기대와 함께 주안에교회의 밸리채플 성도들은 플러튼에서 애써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을 더 열심히 섬겨 드리자는 다짐을 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을 기다린다. 〈관계기사: 8면〉

| 오희경 기자 |

6개월 성경암송 대장정 Kidz~칼리지 60명 수상

■ 2022 셰마장학금 수여

팬데믹 속에서도 주안에교회에서 자라나는 2세들의 믿음생활과 학업을 격려하고 모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심어주기 위한 제4회 주안에장학금 기부와 수여식이 지난 8월 26일 밸리채플에서 있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성경암송 실적을 평가해 장학금 지급 액수를 결정하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칼리지 재학생 등 단계별로 구분해 장학금 액수를 차등 지급했다. 12학년과 칼리지 재학생들에게 별도의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해 장학금이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했다. 금년 총 장학금 지급액은 3만 5,550달러에 달했다.

지난 2월 말부터 7월 말까지 6개월간 매달 한차례 장학위원들 앞에서 암송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에 암송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비롯해 신명기 6:1-12, 시편 27, 92편, 에베소서 6장, 하박국 3장, 잠언 3장 등 신구약 성경 중 7장이었다. 참여 학생 60명 중 20명이 주어진 분량 전체를 암송하고 전체 학생이 암송한 분량이 총 257장으로 집계됐다.

이날 제4회 주안에장학금 수여 예배는 조용대 장로의 감사기도 후 엄우진 (7학년) 군이 잠언 3장, 송레아 (3학년) 양이 마태복음 5장을 각각 시범 암송해 모든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최혁 목사는 격려의 말씀을 통해 주안에교회에서 자라나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하고, 축복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내어 주신 31명의 장학위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 조용대 기자 |

■ 원로은퇴장로 만찬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의 마지막 화요일에 주안에교회 은퇴 원로 장로님 내외분들을 모시는 주안에만찬이 본 교회 친교실에서 있었다. 새로 피택된 네 분의 피택장로 소개와 인사말씀도 드리는 섬김의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 임용자 기자 |

시무장로 4명 · 안수집사 16명 · 권사 41명 피택

■ 2022 임직투표 공동의회

팬데믹으로 3년 이상 미뤄졌던 임직투표가 지난 8월 21일 밸리와 OC채플에서 있었다.

교회 헌법과 내규에 따라 당회에서 추천된 임직 후보는 시무장로 4명, 시무집사 16명 (OC 2명 포함), 시무권사 41명 (OC 8명 포함), 총 61명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2주일 전 공지에 따라 이날 주일예배 후 개회된 공동의회에서 최혁 담임목사는 3년만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된 점을 설명하고 후보들을 선정한 기준과 투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서 마련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권을 교부받은 후, 투표 부스에 들어가 기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권자는 교회 내규에 따라 교회에 등록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도들이었다.

투표 직후 시무장로들이 개표를 진행한 결과 임직 후보들 전원이 총 유효투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택 되었다.

최혁 목사는 임직 투표에 마음을 모아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1년간 이들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내년 교회 창립 10주년에 시무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로 각각 세워지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피택된 임직자들은 다음과 같다.(*표는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에서 시무로)

-피택장로- 공태용 양태섭 윤영섭 이현보

-피택안수집사- *강대니 *박철 양승우 양윤석 *왕승관 *유윌리엄 이카일 임병재 임종구 *장남식 정준화 최일 *최종선 한상호(이상 밸리채플) 김종완 석광수(이상 OC채플)

-피택시무권사- 강선 고은경 고한선 김수지 김순미 김형선 *김혜정 노정심 류명수 송혜나 신혜민 *유연화 *유영애 유제니 윤세희 윤유엔 *윤혜란 이경민 이선민 이소의 이종진 이혜경 이현숙 임종희 장성은 전혜경 *조근자 최남해 최성혜 최승희 최옥희 허제니 *황인숙 (이상 밸리채플)

권한나 김지선 김크리스티나 박엘렌 석정미 이란희 이미선 이현주(이상 OC채플)

| 조용대 기자 |

■ 교육부 졸업식

IC Kidz 8월 마지막주에 학년을 마무리하며 전도사님, 선생님들, 졸업생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축하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우리 자녀들이 주안에서 사랑과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 주기를 바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며, 22-23 새학년에도 은혜가운데 교육부가 성장하기를 응원한다.

| 류명수 피택권사 |

■ 영커플 새가족 소개

빛의 자녀를 소망하며

안녕하세요. 새신자 영커플 현혜진, 현다니엘 입니다.

저희 부부는 앞으로 함께 할 교회를 찾아보던 중 주안에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던 날 영커플을 담당해 주시는 양태섭 피택장로님과 양영권사님의 환영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주안에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새신자로 등록하기까지 조금은 낯설었지만 항상 웃음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주차장에서부터 환하게 맞이해 주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부부는 도전과 교훈이 되며 '하나님의 시간표' 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던 설교는 저희 부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절기별로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성경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깨우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보다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 마음 속 중심에 오로지 주님을 모셔 놓으며, 땅의 것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 힘써 살아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커플 목장을 통해 목원들과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며 가까워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현혜진 성도 |

첫 예배날 설교말씀에 가슴이 벅차 올라

저희 가정은 올해 3월 발렌시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은 라크라센타였지만 플러튼에있는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늘 소원했던 것은 교회와 가까운 곳에 첫 집을 장만하여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7년째 섬기던 작년 겨울 하나님은 발렌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주신 마음은 "그곳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보여주신 목적이 궁금하고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산타클라리타 (Santa Clarita) 지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셨고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지난 3월 정든 교회와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큰 축복을 받으며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새로운 기도제목이 되었습니다.

산타클라리타를 시작으로 벨리지역까지 2개월의 시간을 작정하고 매주 마음이 가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안에교회를 아무런 정보와 피드백없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부활절이였습니다. 어색해하는 아이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우리 부부도 낯선 예배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번도 만나본 적 없는 최혁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잠시 자리에 머물며 생각해 봤습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늘 듣던 말씀인데 가슴이 벅차오르고, 몰랐던 것을 얻은 것 같은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까지 동일한 마음을 느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궁금함이 확신이 되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보였습니다. 열심으로만 하는 분주함이 아닌 여유롭고 잘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섬기시는 모습들은 행복함과 기쁨이 가득한 진실됨으로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가정과 교제하는 많은 분들이 어느 교회를 정했는지 물었고, 주안에교회에 대하여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에서 주시는 평안과 감동이 있는데 모두 걱정의 이야기만 들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최혁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막 교회를 등록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 객관적인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가득 채워 주시길 기도하고, 정한 교회였기에 저희 가정의 선택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을 마음이 가는대로 말했습니다. "믿는 것이 소문이라면 예배를 드려보고 느낀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 합시다!" 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매주 찬양과 말씀의 감동으로 시작하여 낮은 마음으로 섬기시는 모습에 또 감동을 받습니다.

주안에교회는 지난 7년 동안 작은 교회를 섬기며 정신없이 사역에 집중했던 저희 가정에 주시는 안식과 회복입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떨어져 아내와 함께 예배하는 회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신앙함이 아니고, 사람에 충성하기위해 노력함이 아님을 더욱 배워갑니다. 최혁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최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합니다. 섬겨주시는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진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에 취한 신앙이 아닌 소유를 내려놓고 맛있는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안에교회에 허락하신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기대합니다. 주안에교회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 김영진 성도 |

■ 코람데오 가을 수련회

2박3일 성령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코람데오 청년 부의 마지막 수련회 사전답사를 갔었던 때가 2018년 7월 중순이었다.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흐른 2022년 8월 31일, D-DAY를 코앞에 두고 글을 써 내려간다.

몇 개월에 걸친 수많은 회의와, 계획 및 사전답사를 통해 쉼 없이 채우고 조정해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두 손을 모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줄로 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부르시며, 사용하시고 훈련 시키시며, 사랑으로 함께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코람데오만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연합하게 하셨음에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수련회 막바지 정비 타임, 8/27일 토요일 이른 아침 피곤함을 뒤로하고 모인 코람데오 청년 부 리더 및 간사, 국장님 부부와 함께 짧고 굵은 아침기도회를 시작하였다.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되길 바라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관계회복/아픔/상처로부터의 회복, 예배/말씀/기도의 회복,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들, 그리고 수련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강력히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였다.

식사와 다과로 허기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신 권사님과 간사님들, 그리고 피택 장로님의 리드로 Workshop 준비의 과정을 리더들과 함께하며, 청년들과 나눌 때에 듣는 자로서, 사회자로서의 우리 역할을 잘 하기를 다짐하며, 그들과 신앙에 대해서 기초부터 나눌 수 있는 좋은 예비 시간을 가졌었다. Workshop 미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맞이하는 햇살은 어느 때보다 따스했고 평안함이 넘쳐 났다. 성령님께서 은혜가운데 잘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마음이었다.

멀리 OC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일찍부터 피곤할텐데도, 곧바로 수련회 찬양 연습 및 다른 준비를 위해 분주히 떠나가는 뒷모습 속에 같이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의 수고와 사랑들이 더해지며 드는 생각이…… 참 듬직하고, ‘그 리더 참 멋있다’ 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는 한어 청년공동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안세진 성도 |

■ 아가페 영커플 아우팅

3개 목장, 확 트인 바닷가에서 반가운 만남

지난 8월 13일, 영커플의 세 목장이 Dockweiler State Beach에서 모였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섬겨온 목자들의 노력으로 구심점을 찾게 된 영커플 목장은, 일부 개편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번 모임은 개편된 목장을 소개하고, 더욱 친밀한 영커플 목장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화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익숙했던 각 가정은, 확 트인 바닷가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반가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맨발로는 모래를 밟을 수 없을 정도로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씨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같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준비해 온 것들을 나누며 소중한 순간을 함께 했다.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담소를 나누고, 한 걸음 더 다가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위해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모습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훈훈한 마음들을 엿볼 수 있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입은 영커플 목장은, 받은 사랑을 차곡차곡 가슴에 품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눔을 통해 연합하며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있는 영커플 목장의 약진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 황성남 기자 |

■ EM · CoramDeo Fellowship

Dodgers won 10-3!

One day Tom Jipsanim announced to the EM leaders that one of our members, Kyung, was a Dodger fan and often watched games. Tom Jipsanim then suggested that going to a Dodger game as a church event on a Saturday could be a good idea. A lot of EM leaders started to do some research, however we discovered that the prices of tickets had substantially increased lately since the Dodgers had been winning. Laura Jipsanim then suggested going to an Angels game, however the timing did not match our members' schedules and also traveling to Orange County would have been difficult. However, someone then suggested we try going to a Dodger game on a weekday since the tickets would be cheaper. After Paul did some research, we found that weekday tickets were a lot cheaper and that going to a game as a church would be more feasible. Many church members agreed to go and thus we started to plan our trip to a Dodger game.

Many members met at church on Tuesday night to ride the church bus to the game. Pastor Sam drove the bus and some of our members met us at the stadium. We had nice seats to see the sunset, and many of us started to buy hot dogs and nachos. Although not all of us were baseball fans, it was a nice atmosphere and we all enjoyed being a part of the crowd at Dodger stadium. We watched entertaining scenes on the monitor of people dancing, and we participated in doing the wave. We saw a lot of hits and a few home runs, and ultimately the Dodgers won. It was a great night of fellowship. Thank you, ICCC EM! Thank you God!

| Josh Park |

■ Shema Essay

'The Word Keep Popping up in My Head'

To be brutally honest, I started my memorization just for the money. I stopped working once spring semester started so that I could focus more on studying and needed some kind of money since I don't receive any allowance from my parents. Scholarships are free and easy money for me to make and all I have to do is just memorize a couple of verses every month. I couldn't memorize much though. I memorize Matthew 5:1-20 and Psalm 27. As I was memorizing Psalm 27, verse 10 really stuck out to me. It reads, "Though my father and mother forsake me, the Lord will receive me." I can't ever imagine my parents forsaking me. I don't know why, I haven't done anything for them in return, but I know that they love and cherish me so much to the point that no matter what I do, they will still love me and be with me. But let's say that they do forsake. What could I have done for this to be possible? It must have been the

worst sin to have ever existed. In order for my parents to forsake me, I would have had to commit every sin that ever existed. This verse tells me, even if that's the case, even if I was the worst human being to be alive, the Lord will still receive me. That's the grace and mercy I received while memorizing the word. This is especially surprising because when I was actually memorizing the verses, I didn't think twice about the meaning of the verses that I was studying. But because I memorized it, as I live my life, for the next couple of days, some of the verses that I memorize keep popping up in my head. I'd be living life, just taking a walk or driving down the street, and all of a sudden, boom, I remember a verse that I memorized for IC Shema. For me, Psalm 27:10 was that verse. The verse that is filled with love and grace, the verse that tells me that no matter what I've done, the Father will still love me and be waiting for me to return with His arms wide open. That no matter what I do, nothing could separate me from His love. It's crazy. His love is so vast, so limitless, it goes past all of the boundaries that the human mind can set. Even if we studied the

Bible from cover to cover and word for word, we can't even begin to fathom how great His love is for us. That's the love and grace that I learned from IC Shema.

| Eric Lee |

■ ICY Graduation Banquet

Dear Beloved ICY Graduates

Congratulations and WELCOME ICY graduates!!!

Graduating from high school is a HUGE accomplishment, and it's such an exciting time as you make your entry into young adulthood!

I want to challenge you to seek, find, solidify, and pursue dreams with excellence as an act of worship. To us Christians, our dreams grow out of God's customized plan for how He desires to use each of us according to the gifts and talents He has given us. We ARE the salt and light in this world, so go out and conquer the darkness of our enemy by demonstrating a life of faith. I want to encourage you to dream high without setting any limits to what God can do in you and through you. Our heavenly Father is very rich in every way. His arms reach us wherever we are, and He never forsakes us. There is no limit to God's helping hand in every context of our lives. So go out into the world and BE BOLD AND COURAGEOUS about your identity as a child of God.

We're living in a time where young adulthood has become an especially important period for establishing emotional well-being. Your well-being can make all the difference in your choices, behaviors, actions and pursuits that come with lasting effects. You are entering a stage of life where you have much more freedom. You're going to be meeting more people, and many will be from different walks of life. You'll be making important decisions, and the very people you meet within the various communities you are connected to now and will be getting connected to as young adults may greatly influence your decisions if you lack spiritual discernment.

A very important life skill is called help-seeking. To put it simply, it's the action of energetically seeking help when feeling in trouble or encountering stressful circumstances.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who you run to in your most stressful times. In your most troubled times? Who are your most trusted people?

Proverbs 3:5-6 is one of my favorite verses, and it says…

5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6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Many of you ICY graduates have already been a part of our ICCC EM community, but for those graduates who might not feel as strongly connected, I wish to extend a warm welcome on behalf of our EM leaders to every single ICY graduate here with us today. I pray that God will be number one on your list of trusted people, that you will run to God when you need help. And I dearly wish that our EM community,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will be your trusted people so that you would come running to anyone of us - at anytime and with anything.

With this, I welcome you with these closing words from John 3 Chapter 1: verse 2 - "Our beloved, we pray for you that you will prosper in all things and be well, just as your soul prospers."

| Monica Kim |

■ 김선희 기자가 만난 사람/ 장은경 권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상대방은 별로 눈치채지 못한 채 혼자서 좋아하며 은밀하게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교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 뽑힌 그 교인이 내 관심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도 나에게 좋은 감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내 자신도 그 상대 앞에서는 말과 행동을 조금은 주의 하거나 잘 평가받고 싶은 비굴함(^^) 마저도 발동하게 되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는 그렇게 솔직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행동을 하고야 만다.

호시탐탐 기회를 보다가 주위를 좀 살핀 후 기습적으로 백 허그를 하면서 "나는 권사님이 참 좋더라. "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만다. 이 권사님과 나는 주안에교회에 처음 한글학교가 창설될 때에 교장 선생님과 평교사로 첫 만남이 이루어졌었다. 어떤 은밀한 사랑과 관심은 상대방의 풍요로운 삶이나 값비싼 악세사리로 치장하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실한 모습으로 맡은 직분에 충성되이 섬기고 있는가에 주목하게 되는 것 같다.

권사님은 목사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무척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다. 그와는 격이 다르게 어머니의 대리 반장이 되어 고사떡을 한 집도 빠짐없이 돌려야 하는 책무가 특별하게 주어졌던 맏딸로 태어난 나로서는 평생 부모님의 무릎기도의 보물창고를 채우고 있는 목사님 자녀들에게 부러움을 느끼는 것을 숨길 수 없다.

4명의 아들들과 남편 집사님까지 5명의 남자들 속에서 그 작은 체구로 얼마나 "동분서주, 좌충우돌, 우왕좌왕"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왔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거기에 더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 일하는 동생 자녀들 3명까지 7명의 아이들을 한 차에 태워 등하교를 해주는 좋은 언니요 이모 역할을 10여 년을 해내는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집안에서도 실천하는 권사님이었다.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길 때에 그 권사님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교육자료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는 리더였다.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와 풍습도 가르쳐야 한다면서 추석주일에는 송편 재료를 준비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 먹어보는 체험학습도 시킨다. 이런 귀한 경험을 하는 주안에교회 한글학교 친구들은 참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나 그 권사님은 후에 절대 자신의 공을 이야기하거나 세우려 하지 않는다. 늘 수줍게 웃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나보다 나이로는 많이 어린 권사님이지만 이런 존경심이 생기게 되는 걸 보면 나는 진정 그 권사님을 특별한 교인이요 롤모델로 삼고 있었던 듯하다.

조용한 섬김
드러날까...
수줍은 미소

■ OC 성도의 마음, 밸리 성도의 마음

순종의 발걸음, 기대와 흥분

다우니 유대인의 회당을 빌려 시작한 주안에교회는, 뜻하지 않았던 밸리채플까지 허락 하시어서 밸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 공동체를 세워갔다.

계속해서 다우니를 섬기던 성도들은 마땅한 예배처소를 찾아 모세의 광야 40년 처럼 여러 도시를 찾아 다니며 준비를 해야 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장막을 치기를 9년 동안 계속하는 말없는 순종을 보시고 10번째의 예배처소는 밸리채플로 허락을 하셔서 이제는 주안에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며 하나됨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OC채플의 성도들은 매주 장거리여행을 하듯 밸리채플로 향하는 걸음에 조금은 낯설고 서먹함도 있지만 또다시 순종이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뗀다

무얼 가지고 순종의 자리를 지켜갈 것인가 돌아보며 예배공동체의 새로운 만남과, 장거리 여행을 매우 기대하며 흥분하고 있다. | 이에스더 기자 |

정금같이 빚어진 예배자들

지난 9년간, 불편함과 여러 장애를 딛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신 OC채플 성도님들의 신앙의 인내는 밸리채플에 있는 저로 하여금 항상 감사와 겸손의 재료였습니다.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셋팅하고, 시간에 쫓기며 모든 준비를 마쳐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정신없이 비품들을 정리해야만 했었고, 교육부 자녀들은 열악한 환경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주셨을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분명한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 순수하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고난 앞에서도 이 땅을 팔아 하늘을 사는 순도 100%짜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OC채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밸리채플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 된 모습으로 더 큰 순도의 정금으로 빚어져갈 주안에교회를 기대합니다. | 양영 권사 |

■ 제4기 주안에일꾼

11주 과정 이수… 체험과 간증으로 은혜 나눠

제4기 주안에일꾼 훈련이 지난 6월 21일 시작하여 8월 30일까지 11주 동안의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평신도 양육과정의 마지막 과정인 이번 훈련은 그동안 팬데믹 영향으로 오랫동안 열리지 못하였다가 이번에 열리게 되었는데,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줌으로 열렸으나 그 열기와 주안에일꾼에 대한 열망은 여느 때보다 더욱 높았습니다.

훈련생들의 편의를 위해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으로 나누어 진행된 훈련은 오전반에 7명(인도자 안희성 권사), 저녁반에 7명(인도자 김규실 권사) 씩 등록하여 11주 동안 주어진 모든 과정의 내용들을 훌륭히 소화하며 지각과 결석이 없이 아주 모범적인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훈련을 받느라 다소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훈련생들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더욱 깊이 있는 공부에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훈련 시간은 2시간이지만 break 없이 2시간을 훌쩍 넘기기가 일쑤였고, 일부 체험을 나누는 간증 시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 등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했던 임혜신 권사는 이렇게 좋은 훈련을 좀 더 일찍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를 하며,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훈련자들을 위해 많은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뜻과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과정이며, 평신도라면 언젠가는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쉽고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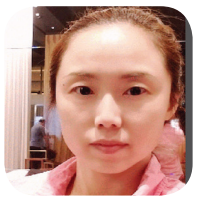
| 이광영 안수집사 |

■ 수료자 소감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믿음의 선물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훈련의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하는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문구가 저를 사로잡으면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느꼈던 많은 과제물이 주는 압박감, 내가 훈련받을 자리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이 책의 첫 문구인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낸 초대장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과제를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과정이라는 것을 매주 새롭게 깨달음을 얻어 갔습니다. 또한 이 훈련의 시간은 저의 여러 훈련과정과 목사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저의 체계적이지 못한 수박 겉핥기 식의 배경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동시에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누가의 복음서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전 생애를 반드시 근원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처럼 편식없이 온전히 먹는 것을 믿음이라고 심어주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형을 통해 예수님 생애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누가복음 10:1)"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먼저 앞서 제자 70인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 계셨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안심하라 이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힘쓰며 예



수님 발자취를 따라 복음 전파를 간절히 바라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처음 그 날처럼 그 날이 세상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구원약속이 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베드로후서 3:8-9)" 이 말씀에서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의 구원 약속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은 무엇인가 질문에 저는 나에게 하나님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림이며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훈련 중에 교제에서 나오는 내용 중 외로운 양치기가 나였음을, 나의 기도속에 나 자신과 가족 이외에 자발적으로 그 누구도 품지 않았던 나를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답을 제시해 주었던 양치기 형제처럼 공동체를 기도로 품고 예수님의 품성인 사랑과 섬김을 남기고자 애쓰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 강진령 피택권사 |

새벽 하늘

70중반 나이에 몸이 성치 않은 것이 뭐 그리 광고치며 떠들 일이 있겠는가마는 마지막 길로 들어서고 있구나 하는 짐작이 될 뿐 그리 우울해지려 하지는 않아 다행이다.

아침 하늘을 혼자 마음껏 욕심부리며 다 접수하려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노라면 서서히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싼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분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가 계신 하늘을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

구글에 뜬금없이 "광속" 이라는 단어를 쳐 보았다. 299,792,558 m/s 일초에 약 30만 킬로를 간다. 그 속도라면 일 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단다. 상상력을 최대로 동원한다 하더라도 전혀 가늠이 안된다. 또 다시 구글에 "하늘의 별의 수" 를 한 번 쳐 보았다. "1" 이라는 숫자에 " 0 "을 22개나 붙여야 한단다. 이 어마무시한 숫자를 보며 소유욕이 유별히도 많았던 어린 소녀는 밤 하늘에서 내 별 찾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 작은 별 즉 행성 중에 지구 위에 머무르는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감히 그 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현실감이 떨어진다. 감히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함부로 살아오지 않았던가. 입으로는 기도로 하나님 음성 듣기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당돌하리만큼 겁없이 너무 건방지게 그 분 앞에 무례한 나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제 조금이나마 신앙의 철이 든다는 이야기인가?

이 새벽 세상이 아직 다들 잠들어 있을 시간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신선도 있는 사랑을 고백해 보고 싶다. 아버지께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다. 자신을 좀 더 사랑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귀한 딸이요 걸작품이라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독여 주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노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내가 되고 싶노라고…

| 김선희 기자 |

다시 마운틴 위트니를 꿈꾸며…

'100세로 가는 길' 이란 표제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태산 선생(본명: 박광복) 은 올해 90세로 자신의 건강을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전하는 신앙인이다. 며칠 전에 태산 선생과 미대륙 최고봉 Mt. Whitney를 다녀왔다.

그분과는 10년 지인으로 몇 달 전에 산행길에서 우연히 재회했었다. 코로나로 인해 못 뵙던 2년 전보다 더 곧아진 자태를 보며, '어떻게 저렇게 더 강건해질 수 있지?' 의아했다.

그 날 이후 아침 동네 산 길에서 또 마주치게 되자, 올해도 Mt. Whitney에 도전하려 하니, 함께 가잔다. 내 사고의 시스템은 이 합당치 않은 제안을 이미 거부하고 있었지만, 나이 많은 분의 제의인데다, '요즘 들어서는 매일매일 더욱 총명해진다' 는 말의 진의가 느껴져, 가겠다' 고 동의했다.

이렇게 시작된 등반 내내 앞서가는 태산을 따라가며, '나도 젊다고 느끼지만, 나보다 20살도 더 많은 이 노인이, 90세가 맞나?' 며 샘이 났다. 이 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깨달아지기에, 감사로 자신을 훈련하고 있다고 했고, 매일의 산행을 유튜브로 올리기에, 매일 게으름 없이 바쁜 것을 모두가 안다.

태산 선생님이 돌아와 올린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다. 야영지 0.25 마일을 앞두고 동료가 고산증으로 피로가 과중되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고, 먼저 야영지에 올라가 자신의 30LBS 배낭을 벗고 동료의 배낭을 메주려 내려갈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단다. 이런 마음은 평소에 자기에게 없던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 때에 나의 몸은 이미 죽어 있는지라, 무거운 배낭 짐을 내던지듯 벗은 그 순간이 생각나, 얼굴이 화끈거리며, 지금도 쥐구멍을 찾고 싶다.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평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부단히 관리해 온 90세 청년 태산 선생과 동반했던 이번 산행은,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은혜의 실상을 깨닫게 된 산행이었다. 이번 등반을 통해 '100세로 가는 길' 이 Catch Phrase가 아닌 Reality 로, 살아내야 할 나의 현실임을 깨닫는다.

| 김경배 장로 |

'미션 나들이' 백년만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권사님들과 함께 피서를 핑계삼아 샌디에고 나들이를 나선 도중 San Juan Capistrano City 에 자리한 Mission 에 들러서 더위를 식히며 때아닌 역사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람데오 사랑의 식탁

8월 20일 토요일, 세리토스에 위치한 한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코람데오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타는 스케이트라 웃음꽃을 피우며 신명나게 빙판 위를 달렸습니다.

저녁 6시쯤 스케이트장에서 나와 저녁식사 자리로 초대하신 김경일 장로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김경일 장로님의 진심 어린 축복기도와, 김옥희 권사님과 이정희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밥상은 너무나도 감동적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께서 청년들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쏟아주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신 재능, 물질, 시간을 나누고 베풀며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시길 코람데오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교사 만찬

토요일 새벽기도 후 친교관에서는 40여 명의 주안에교사 선생님들이 모였다. 교회에서 제공한 맛있는 아침식사와 커피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친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다.

| 임용자 기자 |

밸리 19목장

목자 알렉산더 집사님과 고한선 집사님, 그리고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 오랜만에 반갑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혜순 권사님이 사랑으로 푸짐한 월남쌈을 준비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다.

| 류명수 피택권사 |

■ 음악 칼럼/ 브루크너

인고의 시간을 거쳐 탄생한 대작

안톤 브루크너(Joseph Anton Bruckner, 1824~1896) 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음악가이다.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였지만, 작곡가로서는 실패를 거듭하다 6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이름을 알리게 된다. 거듭된 실패로 인해 주변의 평가에 민감했던 그는, 비평에 마주할 때마다 작품을 수정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작곡법을 철저하게 지켜, 이미 훌륭한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었음에도 고치고 또 고치며 작곡가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다.

브루크너는 '증명서' 사랑으로 유명했는데, 학위나 임명장은 물론이고 훈장이나 상장,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충실히 받았다는 증명서부터 특정 장소를 방문했다는 방문증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증명서들을 수집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레슨을 마칠 때에도 특별히 부탁하여 수료증을 받을 정도였다. 증명서에 대한 집착은 브루크너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방식이

었을 지도 모른다. 아무런 배경이 없는 촌뜨기 음악가였던 그에게, 문서로 된 증명서의 발급은 자신의 행위와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인정욕구는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커지면 판단 주체를 외부에 두게 됨으로 인해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 지나친 인정욕구는 자존감 결핍의 증거이기도 하다. 스스로 채우지 못한 마음의 빈 자리를 외부로부터의 인정으로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기대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타인 역시, 나와 다를 바 없이 미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연단을 견뎌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처럼,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갖은 고난과 시험에도 주님께 순종한 욥처럼, 주변의 조롱에도 꿋꿋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며 거짓없이 순종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정을 받았다.

내가 인정을 구해야 할 존재는 누구인가.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뿐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값을 치르며 좁고 험하고 외로운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 황성남 기자 |

■ 동호인 클럽소식

주안에 할배골프회 9월 첫 주부터 OC채플 성도들이 밸리에서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주안에교회 골프 동호회인 '주안에할배골프회'(회장 이규환 장로)는 한주 앞서 8월 25일 하나가 됐다. OC채플 나형철 장로, 고용흠 안수집사, 김재동 안수집사 3분을 환영하는 모임이 마운틴 메도우스 골프코스에서 있었다.

문의: 이규환 장로 (831)277-2402

에코하이킹클럽 8월 26일 새벽예배 후 8명의 에코하이킹팀 멤버들이 'Towsley Canyon' 등산길, 도중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로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그간 몇 차례 올랐던 밸리 인근 예쁜 코스로 향했다. 이날 처음 조인한 두 권사님이 신경 쓰였는데 막상 오르기 시작하자 웬걸 처음부터 앞서 나간다. 봄풀이 무성했던 산비탈은 황금색 물결로 변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르다.

문의: 조용대 장로 (323)810-9853